



5월 3일

아브라함은 백 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척 사랑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



"매에!"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꽃이 잘 있는지 봐야지."

남우는 시들해진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으앙! 꽃이 죽었나 봐요."



엄마가 다가와 말했어요. "꽃이 시들었구나. 꽃이 시든 것은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요?" "그래,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기거든, 남우가 좋아하는 사과도 사과나무의 꽃이 지고 생기는 거야." 남우는 앞으로 열릴 열매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즐거은 활동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양을 예쁘게 색칠해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